

2026.08.06



글로벌 마켓 브리핑: 극단적 디커플링과 엇갈린 투심

반도체 쇼크 속에서 발동된 글로벌 방어기제와 자금 이동의 재구성 (장마감 기준)

● 국내 증시

KOSPI 6,200선 붕괴

-4.58%

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강한 차익실현 출회.

● 미국 증시

다우 최고치 vs 테크주 투매

다우 54,349

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속 스페이스X 등
주요 기술주 변동성 극대화.

● FICC 시장

안전·대체 자산의 동반 랠리

금 \$1,923 / 비트코인 \$103,000

전통 안전자산과 대체자산으로의
강한 자금 대피 현상 발생.

● 글로벌 증시

아시아/유럽의 상대적 견조함

상하이 +0.45% / DAX +0.80%

한·미 기술주 리스크에서 디커플링되며
주요 내륙 증시 상승 마감.

KOSPI

6,296.38

-301.88pt (-4.58%)

시장 견인 요소

반도체 투매 장세

주요 수급 주체

외국인 (313.4만 주 순매도)
기관 (122.0만 주 순매도)

KOSDAQ

801.67

+2.08pt (+0.26%)

시장 견인 요소

바이오, 2차전지, 로봇틱스 방어

주요 수급 주체

개인 (422.5만 주 순매수)
5거래일 연속 상승 방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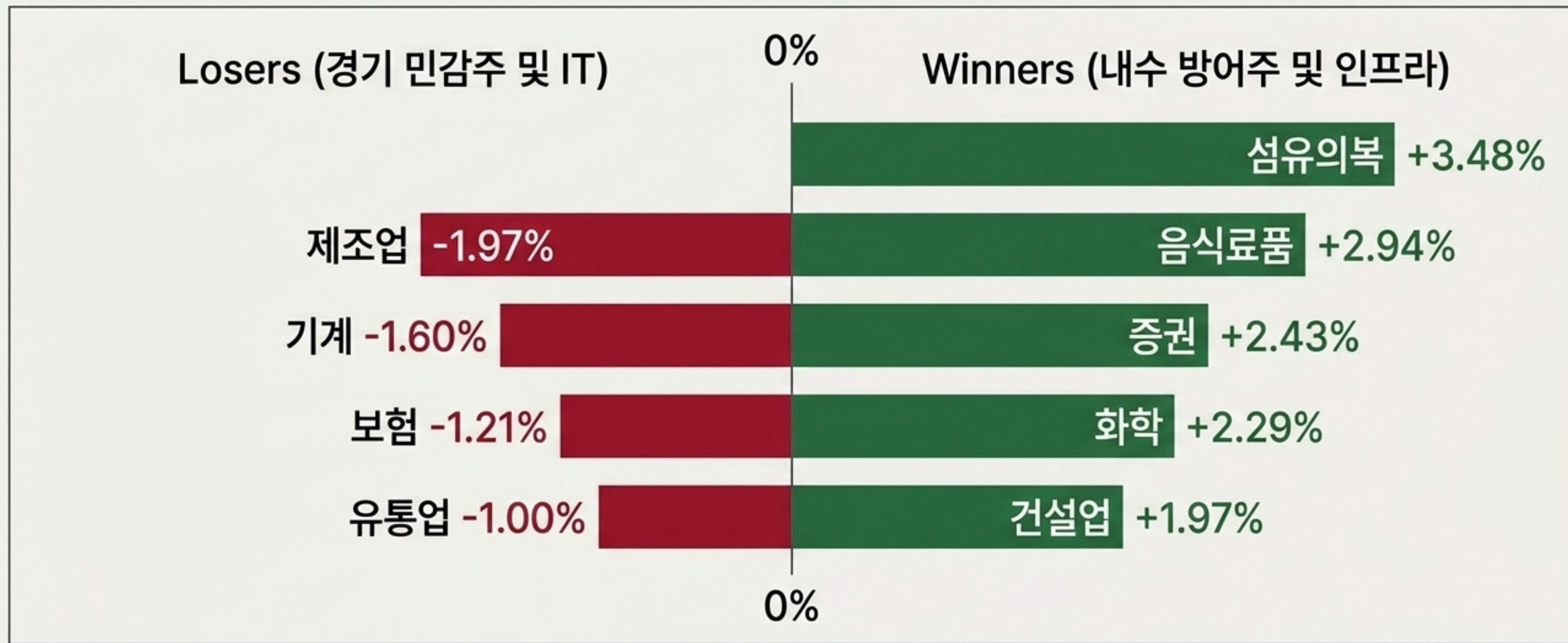
코스피 4%대 급락 속 코스닥의 나홀로 5거래일 연속 상승 — 극단적 수급 디커플링 발생

시가총액 상위 종목 충격량 히트맵

삼성전자 230,500원 -6.30% 1347.6조 SK하이닉스 1,495,000원 -10.37% 1092.1조	LG에너지솔루션 +2.83%
	삼성바이오로직스 +1.54%
	LG화학 +2.15%

지수 하방 압력의 90% 이상이 두 반도체 대장주의 6~10%대 동반 급락에서 기인.
여타 시총 상위 방어주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지수 방어 역부족.

산업별 자금 이동 흐름: 철저한 피난처 찾기



IT/제조/기계에서 이탈한 자금이 섬유/음식료 등 내수 방어주로 대거 이동하며
뚜렷한 리스크 오프(Risk-Off) 장세 시현.

미국 증시: 다우의 요새와 테크주 숨고르기

DOW JONES

54,349.12 (0.00%)



사흘째 사상 최고치 유지

S&P 500

7,723.55 (-0.17%)



소폭 조정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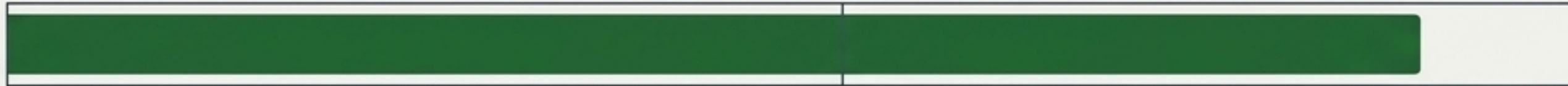
NASDAQ

26,584.99 (0.00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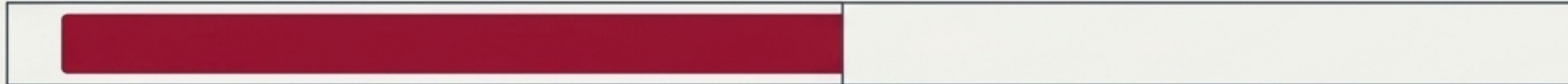
랠리 종료 후 숨고르기

부동산



+7.42% 급등

유틸리티



-1.70% 하락

개별 종목 하이라이트: 스페이스X (-13.62% 폭락)

Context: 미 연준 및 재무부의 엔화 개입이 전반적인 시장 안정 장치로 작용.

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 시선: 극심한 혼란



비관적 시그널

- 마이클 버리(Michael Burry): 1987년 대폭락 재현 가능성 강력 경고.
- 미국 빅테크 실적 부진 및 스페이스X 등 주요 기술주 투매 현상.



낙관 및 조정론

- 골드만삭스(Goldman Sachs): 현재의 코스피 급락은 과도. 목표치 12,000 유지.
- 모건스탠리(Morgan Stanley): 빅테크 AI 인프라 확대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.

Key Insight

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'차익실현'과 펀더멘털 기반의 'AI 사이클 유지'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구간.

FICC 플로우 차트: 대피소로 몰리는 글로벌 자금



국채 (Bonds)

↗ 미 10년물 4.611% (+5bp)

FOMC 매파 기조 영향으로 금리 상승 압력 지속.

외환 (FX)

↘ 원/달러: 1,416.50원 (-5.30원) -> 원화 강세
달러인덱스 하락 (유로 강세 영향, EUR/USD 1.1790)

원자재 (Commodities)

↗ WTI 원유: \$64.89 (+\$2.62)

상승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이란 협상 관망세로 75달러선 회복 실패 (보합권).

Key Insight: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 속, 위험 회피 심리가 외환 및 채권 시장의 자금 이동을 촉발.

대체자산의 폭발적 부상

비트코인 (Bitcoin) 신흥 대체자산

\$103,000 돌파 (+\$1,240 상승)

ETF 순유입 지속되며 증시 혼조세 속
강력한 나홀로 랠리 시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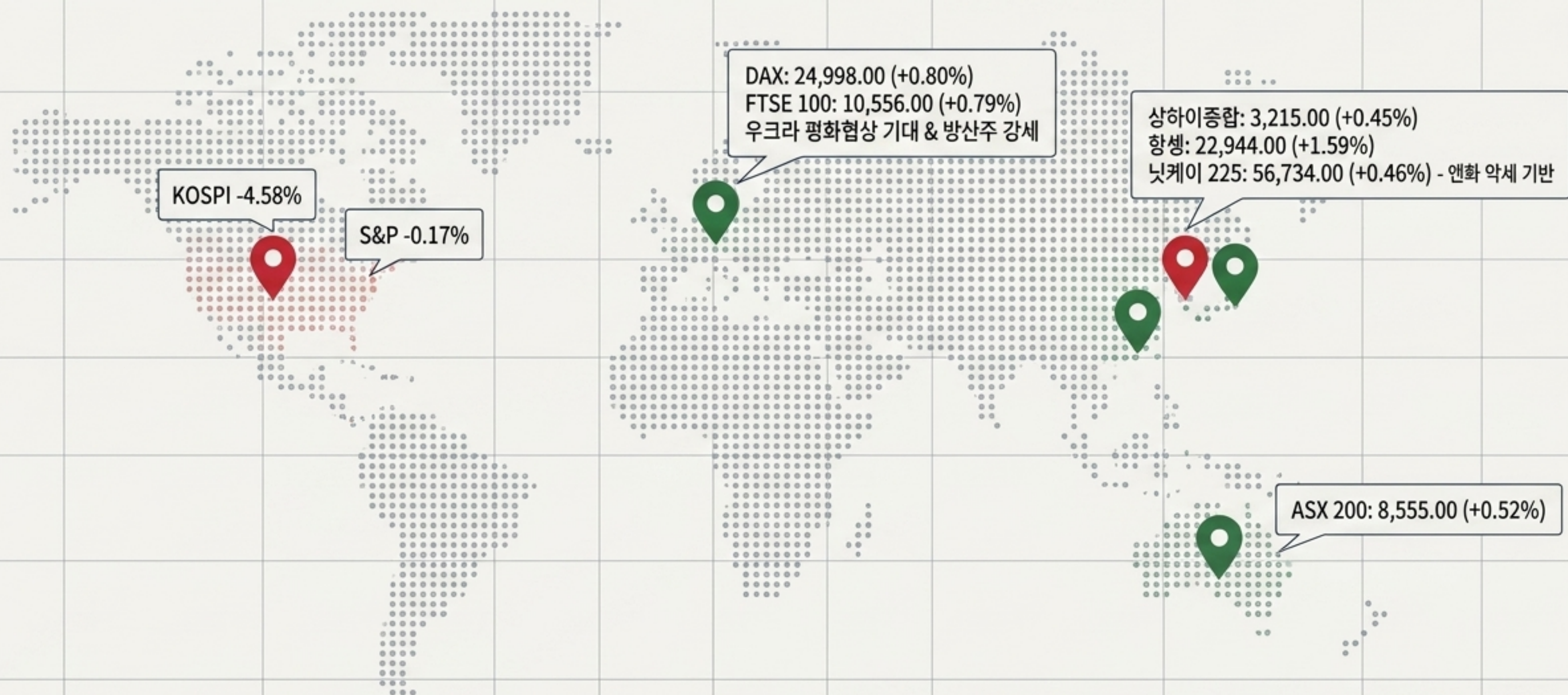
금 (Gold) 전통적 안전자산

\$1,923 (+\$18 상승)

달러 약세 및 글로벌 증시 불안정에
따른 강한 매수세 유입.

증시 변동성에 지친 자본이
'무국적 안전 및 대체 자산'으로 맹렬하게 도피 중.

글로벌 증시: 디커플링의 세계적 스케일



Key Insight: 한/미 증시의 빅테크/반도체 충격은 국지적. 유럽과 아시아 내륙은 각자의 펀더멘털 이슈로 견조한 상승 마감.

종합 인사이드 및 관전 포인트



AI/Tech 옥석 가리기

반도체/빅테크의 단순 하락이 아닌
‘단기 차익 실현 vs 장기 인프라 사이클 유지’의 기로.
개별 종목의 실적 확인 전까지 극심한 변동성 예상.



매크로 변곡점 관찰

국채 금리 방향성(4.6%대 유지 여부) 및
호르무즈 재개방 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방향이
글로벌 자금 흐름의 2차 트리거가 될 것.



철저한 차별화 장세 대비

지수 전체에 베팅하기보다, 방어주(코스닥
성장/가치주, 섬유/음식료 등) 중심의 헷징 전략 및
금/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 비중 조절 필요.

시장은 붕괴(Crash)가 아닌 재편(Rebalancing)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전까지 유연한 포트폴리오 대응이 요구됩니다.